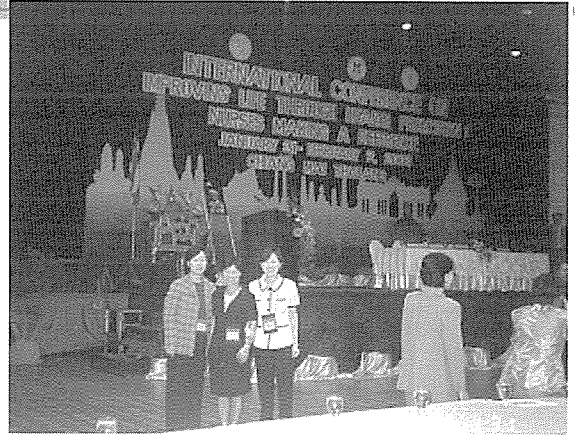


# 건강증진 국제학술회의

- 일시 : 2001년 1월 31일 ~ 2월 2일
- 장소 : 태국 치앙마이



전세계적으로 국민의 건강한 삶을 보장하려는 움직임과 함께 건강증진에 대한 이슈가 한창이다. 우리나라에서도 건강증진법을 제정하여 국가 주도로 건강증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는 2010년 건강선진국 진입을 목표로 보건복지비전 장기계획을 수립하고 보건분야의 주요내용으로 건강증진사업을 통해 국민들의 평생 건강관리 체계를 구축한다는 기본방향을 정립하였다. 이에 보건소를 중심으로 전국 18개 거점 보건소를 정하고 건강생활 실천, 건강 위해요인 제거를 위한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사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있으며, 연세대학교 간호대학이 건강증진 거점 보건소 기술지원 평가단으로 활약하고 있다.

필자는 평가단의 평가부장을 맡고 있으며 건강증진사업에 있어서 간호사의 역할의 중요성을 절감하고 있는 터에 태국 치앙마이에서 개최되는 건강증진 학술회의를 접하게 되어 참석하게 되었다.

## 전세계에서 6백여명 참가

이번 학술회의는 태국 치앙마이대학과 미국 Manoa의 하와이대학, Ann

Arbor의 미시간대학 그리고 호주의 Western Sydney대학 등 3개국 4개 기관이 공동 주최하는 국제대회로 건강증진이 전세계적인 이슈임을 반영하고 있다.

이번 대회에 미국, 유럽, 오스트레일리아, 아프리카, 아시아 등에서 6백여 명이 참석했다는 사실에서도 전세계적으로 얼마나 많은 분야의 사람들이 건강증진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태국의 치앙마이에 대한 관광지로서의 매력도 많은 참석자를 모으는데 한몫을 톡톡히 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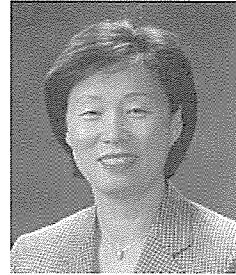
치앙마이는 태국의 제2도시로 방콕에서 700Km 떨어져 있으며 비행기로 한시간 거리의 아름다운 도시이다. 연평균 기온이 26.2도이며 특히 1월, 2월은 태국의 겨울로 쾌청한 날씨가 계속되는 시기이다. 필자가 치앙마이에 머무는 동안 아침, 저녁으로 쌀쌀하기는 했지만 낮 동안에는 20도 내외의 날씨가 이어졌다. 시내의 한쪽 끝에서 다른쪽 끝까지 자동차로 30분 정도로 족하지만 시내 곳곳에 새로 생겨나는 Mart가 말해주듯 근래 들어 크게 발전하는 도시이기도 하다. 북부 불교의

중심지인 치앙마이는 시내 곳곳에서 쉽게 사원을 볼 수 있으며 향 냄새를 맡을 수 있다. 모든 가정이 집에 부처를 섬기는 작은 제단을 갖추고 있으며 매일 분향을 하고 꽃으로 장식을 하는 등 불교는 태국인들의 삶의 전부임을 느낄 수 있었다.

치앙마이는 과거 독립왕국이었던 린나의 수도로서 13세기 말에 창건된 역사적 도시로 독특한 문화적 유산을 간직하고 있다. 지금도 그 옛날 치앙마이를 보호하던 성벽이 남아있기는 하지만 2차대전 당시 일본군이 미얀마 침공을 위해 도로건설 재료로 사용하는 바람에 거의 형태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허물어져 있다. 그럼에도 성벽을 중심으로 매년 갖가지 축제와 행사가 치러진다고 한다. 한국인에게 잘 알려져 있는 태국의 관광명소인 방콕, 파타야, 푸켓 등과는 전혀 다른 느낌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산악도시인 이곳에서 미스 유니버스가 두차례나 배출되었을 정도로 미인이 많은 도시로도 유명하다.

학술회의의 마지막 날 국립대학인 치앙마이대학을 방문하였다. 도시의 아름다운 경관이 대학 캠퍼스로 연결되

태국의 치앙마이대학과 미국의 하와이대학·미시간대학 그리고 호주의 웨스턴 시드니대학 등 4개 대학이 공동주최한 건강증진국제학술대회가 지난 1월 31일부터 3일간 태국에서 개최되었다. 구미를 비롯하여 아시아·아프리카 등에서 6백여명의 전문가들이 참가한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2백여편의 논문이 발표되었다.



金熙暎  
(연세대 간호대학 교수)

고 단과대학별로 별도의 학생, 교수빌딩, 기숙사 및 복지시설 등을 갖추고 있는 종합대학이다. 간호대학의 교수수만 1백여명인 것에서 알 수 있듯이, 대학의 규모가 가히 엄청나다. 태국 정부로부터 막대한 투자를 받고 있다는 안내교수의 설명을 들으면서 앞으로 태국내 대학들이 세계로 발돋움할 수 있는 무한한 잠재력을 갖추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 3일간 논문 2백여편 발표

이번 학술대회는 간호사와 건강증진에 관심을 갖는 건강관련 분야의 종사자들을 위한 포럼으로 학술대회의 주요목표는 개인과 지역사회의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다학제간 연구의 기회를 모색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국제적으로 건강증진 행위와 간호를 탐색하고 건강증진 전략을 나열해 보고, 추후 국가간 협력적인 관계를 유지해 나가고자하는 것이다. 3일간의 학술회의는 매일 오전중에 기초연설과 Plenary Session에서 각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패널들의 강의가 있었으며 오후에는 5개 회의장에서 총 2백편의 논문발표가 concurrent

session으로 이어졌다. 첫째날 Nola J Pender는 기초연설에서 건강관리서비스의 우선순위로 건강증진, 위험요인 감소, 질병예방임을 강조하고 개인, 조직, 지역사회가 위의 세 측면에 적극적으로 동기화될 때 건강을 성취할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지구상의 온 인류가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다양한 수준의 중재방안을 강구하자고 하였다. 이를 위해 건강증진의 core science를 개발하고 건강행위 변화에 관한 연구와 중재의 장기효과에 관한 연구, 문화적, 개인적 차이를 반영하는 행위중재프로그램의 개발, 인간의 유전적, 심리적, 환경적 요인을 통합시킨 건강행위 모형측으로의 전환을 제안하였다.

이어서 WHO의 건강증진과를 담당하는 Dr. Desmond O'Byrne은 WHO의 건강증진 정책에 대해 오타와선언 이후 건강증진 정책과 실무에서 양적, 질적 연구방법을 통한 evidence based approach를 채택하고 있음을 소개하였으며, china medical board의 원장인 Dr. M. Roy Schwarz는 국제간, 직종간 연계를 갖고 협력해서 건강증진 행위를 개

발할 것을 제안하면서 건강분야 직종에서 건강증진사업에 누가 먼저 솔선수범을 보이고 리더십을 잘 발휘하느냐가 큰 이슈가 될 것임을 예측하였다. 발제강연은 건강증진의 evidence based practice와 건강증진 연구의 우선순위, 간호교육과정에서의 건강증진이라는 세 측면을 다루었다.

3일간의 국제회의의 동안 필자는 우리나라에서 진행되고 있는 건강증진사업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다. 현재 우리나라 18개 거점 보건소에서 진행되는 건강증진사업은 질병예방 차원의 건강증진사업 내용이 대부분이다. 좀더 건강증진의 1차예방 수준의 사업과 건강 위해요인의 제거를 위한 적극적인 건강증진사업 모형이 아쉽다.

또한 건강증진사업에 관여하는 여러 직종간에 상호 협력적인 관계와 리더십 발휘가 전제가 되어야 우리나라 건강증진사업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 도시와 농촌의 지역적, 환경적 특성을 고려하고 인간의 생의 주기를 고려해, 태어나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의 평생 건강체계가 구축되는 건강증진사업이 정착될 수 있기를 간절히 고대해 본다. ㉞